

#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인물 관계망을 통한 인지 감성 분석: 『로미오와 줄리엣』의 창작 및 욕망의 주체

박은정\*, 손기락\*\*

한국의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한국의국어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 Cognitive Emotional Schema Analysis through Characters' Network in *Shakespeare in Love* : The Writing Process of *Romeo and Juliet* and the Subject of Desire

Eun Jung Park\*, Kirak Sohn\*\*

Minerva Liberal Arts Colle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vision of Computer and Electronic System Engineeri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 시청자가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스토리를 이해하고 감흥하는 지, 영화의 인물관계망을 중심으로 관객의 인지 감성 스키마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인물 관계망 그림을 절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젊은 나이에 성숙하게 비극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개연적 증거를 제시한다. 필자는 주인공 셰익스피어의 심리를 라캉의 “주체의 열망” 이론을 방법론으로, 셰익스피어의 글쓰기 과정이 셰익스피어로 하여금 영국 르네상스 시기의 대가로 도약하는 계기임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어떻게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제국주의의 전성기 시대에 비올라를 욕망의 주체로 삼아서, 크리스토퍼 말로를 제치고 상류 사회로의 진입을 통해 예술적 대가로 도약하게 되었는지, 시청자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를 인지 감성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 <셰익스피어 인 러브>,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텔링 아키텍처, 인지 감성 도식, 욕망의 주체, 인물 관계망

**Abstract** This paper has the aim to track down the viewers' cognitive emotion of how they are interacting with the story of *Shakespeare in Love*. Human minds have cognitive and emotional flows while plots, characters, and action-ideas are intertwined in the story of the film. This paper especiall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s' networks with four statistical data pictures in order to schematize the storytelling architecture on how and why Shakespeare has strongly motivated to write a great star-crossed love play, *Romeo and Juliet* in his very young age. This paper examines that Shakespeare's subject of desire is to accomplish both a true love and a sincere play which can make the nature of love true. The desire of subject is always slipped aside into scattering with "object a." In the film of *Shakespeare in Love*, the "object a" is a writing process and has a product of *Romeo and Juliet* as well.

**Key Words** : *Shakespeare in Love*, *Romeo and Juliet*, storytelling architecture, cognitive emotional schema, the subject of desire, character's network.

\* 본 논문은 2014 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자 연구사업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NRF-2014S1A5A2A01017353)

\*\* 본 논문은 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1 March 2016, Revised 31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 Jung Park (Minerva Liberal Arts College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eunjip@huf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Shakespeare in Love(1998))[1]의 스토리텔링 구조와 전략을 연구[2]하기 위해서 작품의 인물들이 어떤 관계망으로 되어 있는 지 그 의미망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일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속편으로 통용되고 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불후의 4대 비극을 셰익스피어 작가가 대부분 말기에 완성했는데, 유독 이 작품만, 작가 초기에 그렇게도 감동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상상이 또 하나의 영화 콘텐츠를 창조한 셈이다.[3,4,5]<sup>1)</sup> 즉, 작가의 글쓰기 문제, 예술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결혼과 사랑의 상관관계, 르네상스 시기에 창작자의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주제를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본 영화는 한마디로 대작이요, 성공작이었다.

팔트로우와 피엔스(Gwyneth Paltrow and Joseph Fiennes)가 1998년에 제작해서 유통되었던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7개의 오스카상을 받았고, 최고의 영상상(best pictures)을 받았으며, 희극적 요소, 고품격 언어 풍자, 웃음과 짜릿함을 시청자에게 한껏 선사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 형성 과정을 그리고 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스토리텔링 구조가 독자의 정서와 감흥을 어떻게 이끌어 내고, 시청자의 몰입을 위해서 어떤 비주얼 이미지 전략을 썼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셰익스피어 당대의 연극 공연의 현황, 귀족의 결혼 제도, 대중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반응, 예술을 사랑함이 곧 예술가를 사랑함으로 변모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영화를 감상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움직인다. 마음의 동요란 뇌신경의 동기화에 의해서 지각, 기억, 감흥, 사고 등 일련의 인지 과정이 산출되는 것이다. 일련의 인지 과정은 지각, 기억, 감흥, 사고 등이 축적되어 이들을 질적 분석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양적/질적 분석으로 정보처리 과정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문학이나 예술 비평은 질적 분석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영화를 감상하는 과정 중, 영화 인물들 간의 관계망을 인지하는 단계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그 궤적 일부

를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그런 시각화가 어떤 인지 감성의 축적물로 표상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양적/질적 분석을 하려고 한다. 결국 본 논문은 시청자의 작품 감상과 이해의 지평이 어떻게 작가의 작품 의도와 만나는 지를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용자 중심의 연구이다.

## 2. 연구의 목적

오늘날 인지과학 이론가들은 의식과 무의식, 인지와 감성 모두를 아우르는 ‘마음’(mind)이 계열적이면서도 병렬적이며, 확률적 연결 비중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즉, 마음은 기능적이고 독립적인 다량의 모듈이 계열적 층위로 구성되기도 하고,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인간은 많은 계열적 층위로 클러스터된 신경다발들이 동시에 활성화, 진행됨에 따라 인지 과정이 생성된다. 이러한 개념은 병렬 분산 처리 과정(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고 명명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모듈들이 인지 사고나 감흥의 자극이 오면 위계적(hierarchy)으로 구성되기도, 병렬적으로 연결되기도 하면서 의미망을 구조하는데, 그 구성강도가 확률적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활성화된 신경네트워크의 모양과 크기, 강도가 정황마다 다르게 구성된다. 이렇게 오감으로부터 자극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인지 자극이 오면 우리 뇌에서 계열적, 혹은 병렬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적 연결망이 생기는 데, 그 도식을 스키마(schema)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독자가 인물들에 대한 마음의 인지 지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문화예술 콘텐츠인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를 인물 중심으로 도식화 해보는 독창성이 있다. 스토리텔링의 감흥을 인터액션(interaction)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는 대중문화예술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스토리 변화에 따라 감흥하는 마음의 정서가 어떻게 표상되는지를 인물 관계망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인물들 간의 스토리텔링 아키텍처[6]의 병렬구조적이며 암묵적인 개념 연결망과 연관되는 은유와 주제도 함께 부가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콘텐츠에서 “오브제 아”

1) 필자가 문화/예술과 이공계의 융복합 연구가 거의 없어서 마땅히 제출할 저널을 못 찾았 있었지만, 디지털정책학회에서 예시 논문을 읽고 이 학회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게 되었다.

(object a = object petit a)로 통칭되는 인간의 욕망을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는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추구하는지 그 인지 감성의 궤적을 진단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이런 정서, 감정, 무의식적 선택과 끌림을 연구하는 인지 감성을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와 정량 분석으로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인지 감성과 정서, 또는 감성의 인터랙션이 어떤 문화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인지지도(cognitive map)로 도식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시대적 격차가 있는 오늘날의 시청자가 그 인지 지도를 강렬하고 직감적으로 매핑(mapping)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진략화 되어있는가 등의 인지 아키텍처를 진단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인지과학에서 미흡하게 다루어 왔던 대중문화예술 콘텐츠를—마치 독자 반응 이론(readers' response theory)처럼—시청자의 인터랙션 반응 입장에서 영화가 재현하고 있는 문화 현상과 인지 감성을 주목하여 연구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본 논문은 시청자의 인지 과정을 탐색해 보는 일환으로, 특히 인물들의 이해도를 인지과학에 기반하여 규칙 기반(rule-based)의 기호주의(symbolism)와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연결주의(connectionism)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의 의미 구조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인지 아키텍처의 구조를 연구한다.

### 3.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틀

#### 3.1 사랑의 욕망, 대상, 그리고 “오브제 아”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셰익스피어 작가가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을 만드는 원인과 과정을 상상적으로 설정해서 작가의 사랑에 대한 욕망이 곧 불후의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음을 말해주는 영화이다. 사랑하는 비올라와 완벽한 합일을 이루지 못한 욕망의 엇갈림과 차이, 간극을 작가 셰익스피어는 자신을 로미오로, 비올라를 줄리엣으로 상징적으로 투영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둘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욕망을 운명적 엇갈린 사랑(star crossed love)이라는 비극적 주제를 담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창조하여 대체한다. 즉 셰익스피어에게는 비올라와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완벽한 사랑에 대한 욕망

이 끊임없이 “오브제 아”로 대체된다. 즉, 셰익스피어는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을 자신의 주체 열망의 “오브제 아”의 투사물로 대체하며 창조적인 작가적 글쓰기를 하는 셈이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엔딩에서 셰익스피어는 비올라라는 주인공을 『십이야』(*The Twelfth Nights*)의 여주인공으로 상징함으로써 사랑의 욕망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풀이 하고자 하는 “오브제 아”를 창조함으로써 글쓰기의 원천적 에너지를 솟구치도록 상상계(The Imaginary)를 상징한다. 결국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작가의 글쓰기 과정이 곧 욕망의 “오브제 아”과정이며, 예술이 창조적 욕망의 “오브제 아”의 속성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욕망, 그의 욕망 본질은 “충족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라캉(Jacques Lacan)의 이론을 적용시켜 본다. 결핍과 부재, 좌절과 분열은 욕망을 향한 주체의 존재 방식이다.<sup>2)</sup> 라캉이 욕망을 완벽한 기의(signified)를 갖지 못하고 끝없이 의미를 차연 시키는 기표(signifier)의 연쇄고리라 했을 때, 이는 욕망은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캉에 의하면, 욕망이 대상을 향하는 단계가 상상계(The Imaginary)이고, 그 대상을 얻었을 때 욕망의 완성이 아니라, 어긋나 버리는 단계가 현실의 세계, 상징계(The Symbolic)이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인어 쾌락)에 의해 다시 욕망이 지속되는 영역이 실재계(The Real)이다. 이 차이는 주체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시 욕망을 부르게 되는 미끼를 주며 “오브제 아”가 된다. 라캉은 주체가 상상계와 상징계로 오가며 움직이는 것은 언어의 의미화 작용이 은유와 환유로 무한 대체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정의한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은유와 환유로 이루어진 언어는 곧, 욕망이 대상을 향해 가는 단계가 상상계의 은유, 그 대상을 얻었을 때 느끼는 어긋남이 상징계의 환유이다. 인간의 욕망은 결국, 이 둘의 차

2) 라캉은 '주체'란 문화적 힘(언어와 욕망)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산물로 인식하며, 인간의 욕망이 다른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관계를 중재하는 언어적이고 상징적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주체'와 '인간의 본질적 욕망'은 결합할 수 없으며, '주체'는 '본질적 욕망'을 실현할 도구를 찾아 동일시하지만,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욕망의 환유적 미끄러짐'을 제시했다.

이에 의해 욕망이 끊임없이 미끄러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와 마음에는 실제로는 “오브제 아”가 잉여 쾌락으로 존재하는 실재계에 사는 것이다. 라캉은 실재계의 이 잔여물 “오브제 아”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균형을 탈선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이러한 균형을 지탱시켜 주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에 의해 차연되는 쾌락, 신기루가 없으면 사막을 걷지 못하듯이, 욕망의 지연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 주는 것이 잉여 쾌락이다. 주체에는 타자가 개입되어(S) 대상(a)을 추구하지만 그 대상은 주체의 욕망과 일치되지 못하고 차연(<>)을 남긴다[7,8].

### 3.2 욕망의 차연 “오브제 아”

토마스 켄트를 뒤쫓다가 레셉스 가문의 집(De Lessepse's house)에서 파티가 행해지는 것을 알게 되어 셰익스피어는 여신과 같은 비올라를 보고 첫 눈에 반한다. 그의 사랑은 추상적인 요구(demand)인데 그가 그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적 결합이라는 욕구(need)의 충족이고, 요구와 욕구의 차이는 남게 되어 다시 셰익스피어를 욕망(desire)의 회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비올라라는 대상은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존재하고 목표가 되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목마름이 되고, 만일 소유하게 된다면 비올라에 대한 욕구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욕망의 구조이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엘리자베스 여왕 르네상스 시기에 사랑이라는 욕망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 당시에는 여성은 감히 연극을 할 수 없어서, 여성의 연극을 어린 남자가 대신 배역을 하게 되는 사회적 규율이 팽배해 있었으며, 가부장적 남성에게 사랑의 성취는 곧 결혼이었다. 그 증거로는 웨섹스 경은 비올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부를 성취할 수 있었고, 비올라 가문은 사회적 직위를 얻을 수 있었다. 당대 이데올로기로는 성공적 사랑은 곧 결혼으로 기의(signified), 의미화 되었다. 때문에 웨섹스 경은 부인이 될 비올라가 셰익스피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칼싸움 도전을 연적 셰익스피어에게 한다. 웨섹스 경에게는 결혼이라는 완성된 규약이 있었기에 비올라와 성적인 욕구(need)만 채우면 그의 사랑 요구(demand)가 충족된다. 셰익스피어는 비올라와의 성적인 사랑이 황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즉 그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만들 수 없

다는 욕망의 결핍 때문에, 비올라에게 웨섹스와 결혼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둘이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함께 살자고 조른다. 하지만, 비올라는 부모님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을 영국 국민으로서 받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은 월 셰익스피어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둘 사이가 성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그녀와 합일될 수 없음에 비애감을 느낀다.

셰익스피어의 이 비애감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탄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최고의 연극을 만들어내는 성취 욕망을 한 축으로, 그리고 비올라를 대상으로 혼연의 사랑(결혼까지 하는 완벽한 사랑)을 다른 한 축으로 욕망하였지만, 그의 예술에 대한 욕망과 사랑에 대한 욕망은 원숙되어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어긋나고 미끄러지며, 차이만 남아 “오브제 아”의 궤적을 남긴다. 그 궤적의 흔적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으로 “오브제 아”의 흔적으로 창조 되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령으로 속박된 극작가가 아닌, 자유로운 극작가로서 예술의 진실성, 진정성을 재현하는 작품을 창작하길 약속하면서, 비올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십이야』를 창조하면서 본 작품이 끝을 맺는다. 셰익스피어는 비올라를 그의 심장에 영원히 아름다움과 사랑의 숭고함으로, 완벽한 상상계의 은유로 남긴다. 왜냐하면 그런 상상계적 은유의 욕망 대상이 있어야만 작가로서의 끊임없는 창작의 욕망이 분출되기 때문이다. 작가 셰익스피어는 상상계와,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우리 인간의 전형이며, 예술이란 곧 욕망의 완벽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불가능을 꿈꾸는 인간의 몸과 마음의 행위이자 절규임을 반증함으로써 인지 감성의 숭고함, 정서(emotion)의 미학을 새삼 강조한다.

## 4.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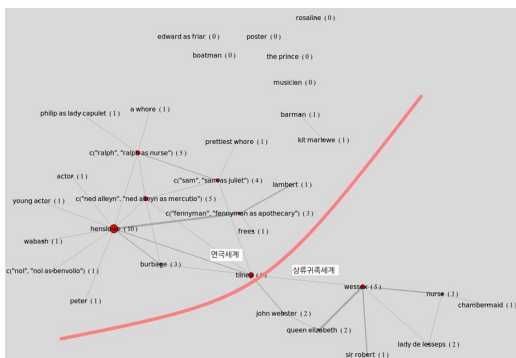
### 4.1 정량 분석의 인물 관계망: 욕망의 주체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주인공은 제목으로 보아서는 셰익스피어다.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그 어린 나이에 원숙하게 창작해 낼 수 있었을까를

현대 비평가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랑의 경험’이라는 상상의 설정을 해 놓으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여성 시청자나 페미니스트들의 눈에는 어쩌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비올라가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셰익스피어와 비올라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작품의 위대성을 주는 비중 인물은 아닐까 하고 의문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청자의 입장에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진정한 주인공, 즉, 중심인물이 과연 누구인지 가려내 보는 것은 매우 의미롭다. 영화를 보면서 작품의 인물 관계망을 하나씩 이해하는 시청자의 인지 감성의 스키마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아키텍처화 해 본다. 본 논문의 3장이 셰익스피어의 의식을 중심으로 그의 주체, 그 주체의 욕망 흐름에 따라서 분석해 본 결과를 라캉의 심리 이론으로 증명해 보았다면, 4장부터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무의식적 주체 욕망을 어떻게 시청자가 작품 감상을 하면서 작중의 다양한 인물 관계망 속에서 이야기의 담화를 이해하는 지, 시청자의 인지 감성의 스키마 단계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스토리텔링 아키텍처로써 증명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Fig. 1]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를 빼고 나머지 인물들의 관계망을 분석해 보기 위한 그림이다. 인물 관계망 분석은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 또는 복잡계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9,10]. 그 래프분석도구는 R의 igraph 패키지를 사용하였다[11].



[Fig. 1] Characters' Network when Shakespeare and Viola are removed.

[Fig. 1]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셰익스피어와 비올라라는 인물 노드를 삭제한 후에 인물간의 관계망을

그린 것이다. 노드의 크기는 노드의 차수, 즉, 그 노드와 주변 노드와의 연결된 에지(edge)의 수를 나타내고, 에지의 굵기는 두 인물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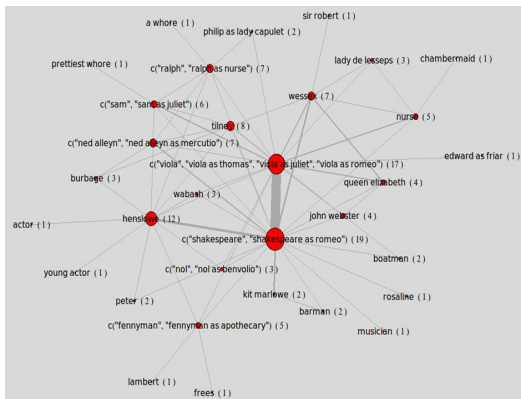
[Fig. 1]을 보면, 연극의 세계와 상류 귀족 사회 두 세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세계를 연결 짓고 있는 인물은 틸니(Tilney)이다. 그는 왕의 명령이나 귀족들의 명령에 따라서 극장을 규제하고 연극인들을 통제하는 법과 규칙을 실천하는 인물이다. 틸니의 존재는 인간적인 관계망을 연결하는 사람이 아니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코드(code)일 뿐이다. 사회적 규제의 코드 만이 두 세계를 연결지를 뿐, 두 세계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세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배경으로 하는 엘리자베스 시대,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이렇게 인간 관계망이 계급적이라서 상류 사회는 예술을 보고 즐기는 계층, 중하류 층은 예술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상류 사회의 감정과 정서에 맞춤형으로 극작을 창조하고 연극을 공연해야 하는 주문자와 생산자의 관계가 뚜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셰익스피어라는 당대의 거장이 상류 사회와 중하류 계급 사회를 어떻게 연결하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두 계급을 작품에 녹아나게 했었을까? 당대의 창작자의 시대적 존재감은 어땠으며, 그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떤 상황에서 만들게 되었을까,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간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되새김질 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욕망 이론을 전형화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불후의 작품을 팔트로우와 피엔느, 그리고 영화대본 작가 톰 스타파드(Tom Stoppard)가 산출해 냈다.

[Fig. 1]의 중요성은 셰익스피어는 중하류의 예술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상류 사회에 속해있던 비올라를 통해서 사랑도 얻고, 극작가로서의 명성도 얻고, 비올라와 연관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사회적 지위도 얻어서 비로소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런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셰익스피어를 당대의 최고의 극작가로 만들어준 비올라가 더 중요한 숨겨진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남긴다. 이런 일련의 탐구가 바로 본 논문의 목적이 되며, 그 결과가 논문의 주제가 될 것이다. 등장인물 간의 실질적 중심성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 중 누구일까, 또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시청자는 어떤 인지 감성을 갖게 되어

작품의 주제를 인지할까,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본 논문의 흐름을 따라와 보면 흥미로운 것 같다. 주인공은 분명히 셰익스피어이지만, 셰익스피어의 인지와 감성을 조종하는 진정한 주인공은 셰익스피어가 아닌, 그 연인 비올라이다. 즉, 셰익스피어의 욕망의 대상인 비올라가 바로 셰익스피어 욕망의 주체가 되는 변증법을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작품의 인물 관계망을 분석해 보면, 주인공에 대한 실증적 정량 분석 데이터가 아래와 같다. [Fig. 2]는 한 눈으로 보아도, 셰익스피어가 주인공임이 드러남과 동시에,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은 예술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 다양한 인물군과 연결되어 있다지만, 특히 두 인물과 긴밀한 인간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예술 작품을 산출하기 위해 경제적 뒷바침으로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극장 소유자 헨슬로우라는 예술작품을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한 인간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예술가의 난관(writer's deadlock)에서 고갈된 사랑을 축여주는 여성 비올라가 주목된다. 그녀는 영국 제국주의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대에 엘리자베스 여왕까지 주인공에게 관계망을 형성해 준다. 셰익스피어는 대부분 두 인물을 통하여, 특히 비올라를 통해서 세기가 낳은 극작가로서의 품위에 걸맞게 영화 전체의 인물과 관계망을 성취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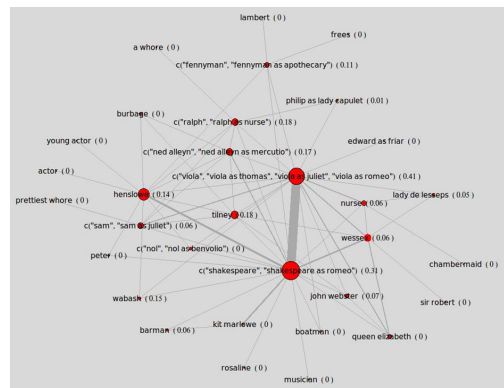


[Fig. 2] Characters' Networks in *Shakespeare in Love*: the numbers in bracket ( ) show the degrees of nodes.

[Fig. 2]에서 보듯이 영국 르네상스 예술의 성장(icon)인 셰익스피어는 예술과 극작에 에너지를 쏟고, 그 인간

관계망을 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술적 인지 감성의 발현이 그의 예술 종사자들과의 관계망에서 크게 뻗어내고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비올라(Viola)와의 관계망은 다르다. 비올라의 중요성은 셰익스피어의 심장에는 완벽한 여인의 화신이고, 그가 그리도 갈구하는 최고의 예술가가 되는 원천적 에너지 소스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비올라는 상류 사회에 속해 있으며, 무도회에서 예의 바르고, 정숙하며, 우아하고, 귀품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같은 사회적 신분이 낮은 극작가에게 완벽한 성적 욕망의 대상이자, 창의적 극작 산물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인지 감성 체계들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비올라는 로잘라인(Rosaline)처럼 돈을 주면 아무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에게는 순결하고 고매한 사랑이라는 욕망의 완벽한 타자이다.

하지만, <셰익스피어 인 러브> 작품의 전반기에는 헨슬로우나 비올라가 셰익스피어에게는 상상계에 머물러 있는 대상이다. 즉, 어린아이가 거울 단계(mirror stage)에서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타자이며, 그 타자가 곧 자신임으로 오인(misrecognition)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12,13,14]. 왜냐하면, 아직은 비올라가 토마스 켄트이며, 비올라가 연극에 참여해서 얼마나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지를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아직은 헨슬로 몰주가 완벽하게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상정한 상태로 인간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3] Characters' network after merging the same character : the numbers in bracket( ) show the betweenness centrality

위의 [Fig. 3]에서는 토머스 켄트가 비올라임을 깨달은 이후에,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인물 관계망의 인지 정서를 분석해 보았더니,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Fig. 3]은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관계망에서 동일 노드로 병합한 인물 관계망이다. 노드옆에 ()안의 숫자는 그래프 노드의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15,16]³)을 나타낸다. 헨슬로우의 관계망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비올라와 셰익스피어가 등장 인물들을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셰익스피어보다 비올라가 더 큰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술과 연극을 사랑하는 비올라의 등장과 그녀의 남장 변모로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사랑 스토리가 급속하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가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완벽한 사랑의 송고미를 가진 여인이 바로 비올라이며, 비올라와 함께 예술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셰익스피어는 비올라에게 의존된 인물 관계망, 그리고 창작의 원천이 비올라임이 진실로 밝혀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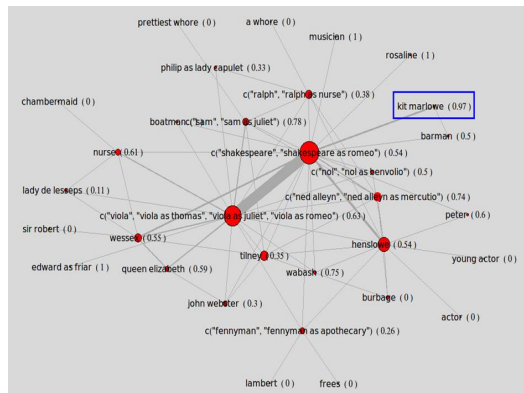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영화를 감상하다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의 탄생은 온전히 셰익스피어만의 창작물이 아님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영국 르네상스 당대의 두 예술 거장인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는 우연히 술집에서 대화를 하게 된다. 글 한 줄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면서도 셰익스피어가 허풍을 떨고 있자, 당시에 훨씬 명성이 높았던 말로우는 조용히 셰익스피어에게 작품의 기본이 되는 흥미로운 스토리의 골격을 붙여 넣어 준다. 수십 년간 원수로 지내던 가문 간의 자식들이 남녀로 만나 첫 눈에 반한 사랑이 어떻게 현실에서 흥미롭게 진행될 지에 대한 스토리 전개는 시초 플롯을 세워준다.

또한 『닥터 파우스트』를 공연하던 말로우의 배우들이 대거 셰익스피어를 도우러 와서 경제적으로나 스토리

의 주제적으로 빈약함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 닥터 파우스트 역을 맡았던 네드 알레인(Ned Alleyn)은 처음에는 자신처럼 유명한 배우가 역할이 미비하자 불만을 품는다. 자기 대신 연극의 주인공 역을 담당하고 있는 듯한 토마스 켄트에게 연극 미숙함에 대해 많이 불평하며 셰익스피어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했지만, 나중에는 셰익스피어가 켄트(비올라)와 연극을 통해서 사랑 주제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보고, 작품의 제목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고치라고 결정적으로 말해 준다. 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두 원수기간의 가문 자식들이 애절한 사랑을 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는 스토리 주제로 제목도 부합되도록 적극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창작자의 독창성에 관한 권리(copy right)같은 것이 없었던 시기임을 넌지시 드러낸다. 때문에 “짧은 생애 동안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혼자서 다 완성하고 산출했을까”라는 현대 비평가들의 의혹을 길게 잔상하는 셈이다.

#### 4.2 『로미오와 줄리엣』 옥망의 주체, “오브제 이”, 상상계/상징계/실재계

『로미오와 줄리엣』의 탄생은 말로우가 스토리의 첫 구도를 잡아 주었고, 비올라가 작품 실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네드 알레인이 작품의 제목을 붙여 주었다.



[Fig. 4] Main Characters' Network: the numbers in bracket ( ) are the closeness to Shakespeare and Viola.

[Fig. 4]에서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 노드 옆에 ()에는 노드의 주인공에 대한 긴밀도의 숫자가 그것이다. 긴밀

3)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그래프의 두 노드(node) 사이의 최단경로들 중에 특정한 노드 v를 지나는 최단경로의 비율이다.\*\* 이 값이 높을수록 노드 v는 그래프에서 노드 사이의 연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정규화된 사이중심성은 그 값이 0 ~ 1 사이에 분포하도록 정규화한 것이다.

$$\text{normalized\_betweenness}(v) = \frac{\sum_{s \neq v \neq t} \frac{v \text{를 통과하는 } s \text{와 } t \text{ 사이의 최단경로의 수}}{s \text{와 } t \text{ 사이의 최단경로의 수}}{\max_{t \in G} (\text{betweenness}(t)) - \min_{t \in G} (\text{betweenness}(t))}$$

도는 어떤 인물이 관계 맺는 주변 인물들 중에 특정 인물에 대한 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sup>4)</sup> 말로우의 셰익스피어에 대한 긴밀도는 0.97이다. 즉 주인공 셰익스피어는 말로우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집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Fig. 4]를 분석해 보면, 셰익스피어는 영화의 모든 인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말로우는 오로지 셰익스피어와만 관계를 맺고 있다. 말로우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스토리의 기본 골격이 되었고, 말로우의 예술가적 역량이 셰익스피어에게 와 닿은 것임을 증명한다.

이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 햄릿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 햄릿의 아버지 고스트의 출현에서 햄릿의 마음이 움직였고,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의 말에 따라 햄릿의 행동이 좌우되지며, 결론도 햄릿 아버지 고스트의 예언에 따라 햄릿의 행동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햄릿의 작중의 역할은 아버지 고스트의 예언과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이 귀결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17,18].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말로우의 존재는 셰익스피어의 정신세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셰익스피어는 말로우의 스토리 구조에 힌트를 얻어서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게 된 동인이고, 말로우의 추종자들이 셰익스피어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공연의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 공연을 완성해 가면서 시기 적절하게 네드 알레인이 조언을 해주어 함께 작품을 완성하게 된 셈이다.

셰익스피어에게는 말로우 같은 정신세계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원한 동경 대상이자 이루지 못할 완벽한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올라가 존재한다.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고 있는 셰익스피어에게는 거울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신세계의 결핍과 부재, 그리고 현실 상징계와

실재계의 진면모를 몰랐기 때문에 헨슬로우나 비올라 같은 인물로 도움을 받아서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완성된 총체적 자아로 오인할 수 있었지만, 사실 언어를 배워가고, 인간 사회의 규칙과 코드를 익혀가는 셰익스피어에게는 사랑의 원천적 대상은 끊임없는 미끄러짐과 차연(difference)만 발생하지, 완벽한 사랑의 대상인 비올라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완벽한 사랑의 대상은 결혼을 함으로써 소유해야 한다는 제국주의 가부장적 성적 담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한편 부성적 남근(Phallus)의 상징인 말로우가 제거되고 죽어야만,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에게 말로우는 자기보다 월등 인정받던 당대 작가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심한 질투와 심리적 갈등으로 얽혀있을 큰 존재였을 것이다. 드비쉬 가문의 파티에서 남몰래 비올라를 흠모하면서 녀을 잃고 있는데, 웨섹스가 자신의 신부를 흠모하는 셰익스피어를 보고, “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셰익스피어는 무의식적으로 “말로우, 크리스토프 말로우요!”(Marlow, Christopher Marlow!) 라고 거짓 답을 불쑥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로우가 술집에서 칼싸움하다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웨섹스와 말로우가 결투하다가 웨섹스에 의해서 말로우가 살해되었다고 온전히 스스로 믿어 버린다. 죄책감일 것이다. 즉 어머니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아들의 욕망이 늘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남근이 될 성숙된 아들의 잠재적 모습이며, 그러면서도 남근의 상징인 아버지 말로우로부터 원숙한 극작의 기초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수용하면서 작품을 단계별로 완성해 간다. 때문에 [Fig. 4]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즉 말로우는 셰익스피어에게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물임이 여실히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Fig. 4]가 증명하는 점이 하나 더 있다. 말로우의 창조성, 즉 남근성을 빌려움으로써 비로소 창작을 시작하게 된 셰익스피어에게는 완벽한 이상향, 연인, 어머니 역할을 하는 비올라가 욕망의 중심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영화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공연작을 상징적인 아버지이자 남근성의 상징인 말로우로부터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의 대상이자, 상징적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올라의 절대적인 도움이 공연과 창작의 단계

4) 긴밀도(closeness)는 그래프의 어떤 노드(v)가 특정 노드들(T)과 관계를 맺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프 에지의 weight를 사용하며, weight가 지정한 임계치를 넘지 못하는 에지(infrequent edges)인 경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어떤 등장 인물이 오직 특정 인물과 관련을 맺는 정도가 높을 경우, 그 인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text{closeness}(v, T) = \frac{\sum_{t \in T} v \text{와 } t \text{ 사이의 weight}}{\sum_{t \text{는 } v \text{의 이웃 노드}} v \text{와 } t \text{ 사이의 weight}}$$



단계마다 절실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 영화에서 매우 흥미롭게 잘 묘사된 장면들은 셰익스피어와 비올라가 밤에는 둘 만의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고, 낮에는 무대에서 연극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이 둘의 사랑이 어떻게 완속되어 가고 있으며, 어떻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지를 잘 재현하고 있다. 즉, 셰익스피어와 비올라의 애뜻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주체가 곧 『로미오와 줄리엣』의 엇갈린 사랑(star crossed love)임을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화의 장면 장면을 구성했다. 셰익스피어의 입장에서 보면, 비올라와의 한계 있는 사랑을 완성해 가는 단계와 4대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완벽한 작품을 단계마다 완성하는 에너지가 바로 비올라와의 사랑에서 비롯됨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 원천적 에너지 근원을 비올라에게 얻어서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었으며, 상징계와 실재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작품의 결론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훌륭하게 공연하고 모든 관객을 완벽하게 심금을 울렸으며,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약속, “예술은 삶의 진실을 표현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비올라와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상징계의 성공은 대단했다. [Fig. 3]에서 보면, 셰익스피어의 역할이 0.31인 반면, 비올라의 역할은 0.41로서 실질적으로 영화 인간 관계망에서 비올라의 인적 구성이 훨씬 뛰어나다. 그만큼 연인이자 정신적 지주인 어머니 같은 비올라의 사랑은 셰익스피어를 당대의 거장으로 만들만큼 힘이 크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사랑에 대한 그의 열정적 욕망이 매몰차게 좌절됨을 인지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이 주체이며, 인간의 주체성은 반복과 주체분열 등을 통하여 형성된다. 셰익스피어는 말로우를 뛰어넘는 당대의 최고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다다랐으나, 다다르는 순간 그 욕망은 미끄러지고 차연되었다. 비올라라는 대상은 실제 같지만 신비의 껍질을 벗기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올라와의 성적 환희와 연극 속에서의 소망 충족은 이루어져 ‘예술이 진실을 재현할 수 있다’는 예술적 순간은 보여주었을 지언정, 비올라와 진정한 합일인 결혼은 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에게는 욕망을 지연시키는 욕망의 미끼 “오브제 아”라고 할 수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느끼고 즐겼던 비올라와의 사랑,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와 그 육체적 향기 내음은 감지할 수는 있었으나, 그 모든 환희는 “오브제 아”일 뿐 진정한 대상 비올라는 늘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있었다.

라캉의 이론에서 욕망의 대상인 “오브제 아”는 사실상 어떤 실체적 존재가 없는 ‘무’이지만 주체의 욕망을 일으키는 부재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비올라라는 대상을 지향하고 응시하긴 하지만, 붙잡고 포착할 수는 없다. 이 “오브제 아”는 주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체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결핍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상으로 구성된 주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표들의 연쇄를 따라가 상징계 밖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브제 아”는 텅 빈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욕망의 대상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욕망’과 ‘주체’, “오브제 아”의 관계는 서로의 틀 안에서 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 서로를 구성한다. 어떤 대상의 결여를 염두에 두고 상실된 대상과 인간과의 관계를 볼 때, 그 빈틈은 바로 욕망이 된다[19].

공연이 끝나자마자,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해놓은 사회적 규약과 코드에 의해서 50파운드를 받아서, 독립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결과를 맞이하였으나, 사회적 규약과 코드의 금기로 인해서 비올라와 결혼을 할 수 없고, 규약 대로 웨섹스에게 비올라를 양보해야 했다. 합일될 수 없는 비올라라는 욕망의 대상과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은 무한한 “오브제 아”가 될 수 있을 뿐, 셰익스피어의 입장에서 보면 실재계의 인지만 남는다. 은유와 환유의 차이에 의해 욕망의 충족이 끝없이 지연되는 것은 차이와 연기가 합쳐진 데리다(Jacque Derrida)의 ‘차연’(difference)과 같다. 이것이 어머니 비올라의 가르침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회 문화적 코드이다. 교훈을 통해, 자신의 유일한 맞수인 말로우가 없어진 상황에서 셰익스피어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는 될 수 있지만, 비올라에 대한 열망은 채울 수 없다. 비올라는 영원히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환영의 상태로 남긴 채, 셰익스피어는 『십이야』를 쓰라는 주문을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받는다. 셰익스피어는 궁중 작가라는 최고의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진정한 욕망의 대상인 비올라

는 상징계에서는 어그러진 “오브제 아”였고, 실재계에서는 마음 속에 스키마화된(schematized) 연인 비올라로 남는다.

## 5. 결론: 욕망의 주체, 비올라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펜으로 다시 극작을 시작한다. 『십이야』의 첫 부분을 어떻게 비올라를 형상화 하고 있는지를 그려내고 있다. 50파운드를 들고 독립 작가로서의 축하를 하러 온 비올라에게 셰익스피어는 다시는 극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극장은 꿈만 꾸는 사람들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The playhouse is for dreamers. We all dreamers). 그러자 비올라는 자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상처받아 글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스토리 『십이야』의 시작과 단초를 그려준다. 난파선으로 인해서 황량한 새로운 육지로 떨어진 공작 올시노(Duke Orsino), 그리고 비올라(Viola)라는 여인간의 인생 코미디와 사랑 이야기의 단초를 준다. 없어져버린 남근 부정적 힘 대신, 어머니 같은 마스한 교육에 힘을 얻은 셰익스피어는 다시 창작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제는 셰익스피어는 더 이상 거울단계의 어린아이가 아니다. 꿈꾸는 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추구는 그에겐 영원한 욕망이 된다. 셰익스피어는 절규한다. “당신은 나에게 절대 나이 들지도, 시들지도,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아요!”(You will never age for me. Nor fade, nor die!) 셰익스피어에게 비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랑, 욕망의 대상이었고, 욕망의 대상일 것이다.

라캉이 말했듯이, 그런 욕망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셰익스피어는 비올라에게 “안녕, 나의 웨섹스 부인, 안녕, 나의 사랑, 수 천만번 안녕!”(Goodbye my Lady Wessex, Goodbye my love, thousand times goodbye!)이라고 말하자, 비올라는 “나에 대해 잘 써봐요”(Write me well)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둘은 뜨거운 포옹을 하고, 둘의 몸은 떨어진다. 양피지에 『십이야』라는 제목과 1장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 셰익스피어. 배가 난파하지만, 한 여인 비올라는 바다보다도 더 위대

한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해변가의 세계가 펼쳐진다”의 스토리로 시작한다. 셰익스피어는 이것이 또 하나의 사랑 이야기이며, 그녀의 이름은 비올라(Viola)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나의 여주인공이기 때문이다”(for she will be my heroine for all time)라고 셰익스피어는 고백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아름답고 장대한 음악과 함께 비올라는 해변가 사막을 홀로 걷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를 비올라는 미지의 꿈을 꾸며 저 세상엔 무언가 신기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궁금함과 두려움을 함께 하며 계속 걸어간다. 이 이미지가 바로 셰익스피어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며, 그의 주체, ‘비올라’인 것이다.

## ACKNOWLEDGE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 offered fro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4 (NRF-2014S1A5A2A01017353). Also the second author Kirack Sohn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fered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EFERENCES

- [1] Norman, Marc, and Tom Stoppard, *Shakespeare in Love*, pp. 1-118, 1998 .www.screenplay.com/downloads/scripts/shakespeareinlove.pdf 2015.03.20.
- [2] Park, Eun Jung, *Storytelling Meets the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Art in the Era of Contents*, pp. 21-37, Seoul: Idam Books, 2010.
- [3] Kim, Man Ki, “Semiotics analysis of Saussure, Pierce, and Myth of Barthes Focused on the film ‘Veter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1-6, 2015.
- [4] Song, Ho-Jin, Eui-Tae Jeong, “A Study on the utilizing parody and pastiche in Contemporary Art 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01-212, 2015.
- [5] Chang, Jun Jeong, “A Study on the Advertising Creative Based on the Technology Convergence”,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235-241, 2015.
- [6] Park, Eun Jung, "The Emotional Cognition for the Tragedy vs. Comedy in *Shakespeare in Love* and *Ratatouille*: A Study of Schema in Storytelling Architecture," *Humanities Contents* 40, p. 11, 2016.
- [7]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 Dennis Porter, Ed. Jacques-Alain Miller, pp. 209-212, New York: Norton, 1992.
- [8] Kwon, Taekyoung et. al., *The Theory of Jacques Lacan's Theory of Desire*, pp. 18-24, Seoul: Munyea Publishing, 1994.
- [9] Otte, Evelien, and Ronald Rousseau, "Social network analysis: a powerful strategy, also for the information scien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28, No. 6, pp. 441 - 453, 2002.
- [10] Barthélemy, Marc, "Betweenness centrality in large complex networks," *European Physical Journal B-Condensed Matter and Complex Systems*, Vol. 38, No. 2, pp. 163 - 168, 2004.
- [11] Csárdi, Gabor, and Tamas Nepusz, "The igraph software package for complex network research," *InterJournal Complex Systems*, Vol. 1695, No.2, pp. 1-9, 2006.
- [12]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as revealed in psychoanalytic experience,"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A Reader*, pp. 287-292, Pierson: Prentice Hall, 1949.
- [13]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New Left Review* 51, pp. 71-77, 1968.
- [14]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pp. 1-8, London: Routledge, 1977.
- [15] Freeman, Linton, "A set of measures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 pp. 35 - 41, 1977.
- [16] Newman, Mark E. J., "A measure of betweenness centrality based on random walks," *Social networks*, Vol 27, No. 1, pp. 39-54, 2005.
- [17] Moretti, Franco, "Network Theory, Plot Analysis," *Pamphlets of Stanford Literary Lab* 2, May 1, pp.

1-34,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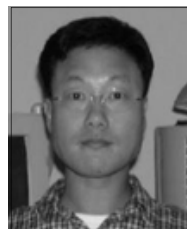
- [18] Moretti, Franco, "Network theory, plot analysis," *New Left Review* 68, March-April, 2011.
- [19] Ziz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pp. 159-160, New York: Verso, 1989.

박 은 정(Park, Eun Jung)



- 198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 1987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미국소설 석사
- 1992년 6월 ~ 1994년 8월 : Duke University 객원학자
- 1996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 박사
- 1998년 3월 ~ 2000년 2월 :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 겸임교수
- 2000년 10월 ~ 2002년 9월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박사 후 연구
- 2001년 7월 ~ 2003년 8월 : Univ. of Washington 포스트 박사 연구원
- 2003년 3월 ~ 2008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대우교수
- 2001년 3월 ~ 2002년 2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의교수
- 1988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교양대학 시간강사
- 관심분야 : 미국대중문화, 문화콘텐츠, 한류
- E-Mail : eunj@hufs.ac.kr

손 기 락(Sohn, Kirack)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이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전산학전공 이학석사
- 1993년 12월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전산학박사
- 1994년 4월 ~ 1996년 2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1996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교수
- 관심분야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이닝
- E-Mail : ksohn@hufs.ac.kr